

대학의 존재 의의와 교양 교육



김 병 북
경희대학교 총장

대학은 흔히 ‘상아탑’이라는 상징어로서 회자되곤 한다. 세속을 피하여 조용히 학문에만 정진하는 학인들의 태도에서 연유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유한 의미에서 대학은 순수한 학문 탐구만을 목적으로 할 뿐, 탐구되고 습득된 지식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일 뿐이다. 그러나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오히려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효용이 우선시 되어 순수한 학문을 지향하는 진리 탐구의 측면은 외면받기 십상이다. 하물며 도덕과 윤리의 문제는 인간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교양’이라기보다는 그다지 구애받을 필요 없는 취향과 선택으로서의 ‘교양’ 정도로 취급받곤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회적 요청과의 긴장 속에서 그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대학의 존재 의의를 살펴 볼 필요가 생긴다. 우선 대학을 뜻하는 ‘university’의 어원 ‘universitas’에 우주, 사회, 전체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보편성을 추리할 수가 있으며, 특히 동양의 한자문화권 지식인들에게 학문의 전체 윤곽을 밝혀주었던 경전인 『大學』에서 학인의 실천조목으로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강조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저 홀로 독존하는 ‘個人’이 아닌 가족-국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間人’이기에, 내 몸이 타자와 더불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도덕과 윤리를 품수한 보편적인 ‘人間’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동서를 막론하여 점차 문명사회로 진입, 사회가 분화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졌던 교육이 그 한계에 봉착하자 보다 탁월한 재능과 함께 참된 인격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부터 대학이라는 최고 교육기관이 요청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나와 가족은 물론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필요한 학리와 응용 방법

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계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물음을 안고 공부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인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과 윤리를 담지(擔持)한 지도자적 인격까지도 겸비할 수 있도록 주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대학은 기초학문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실용이라는 국가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전문화되고 파편화된 세속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 주는 기능적인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만 급급해 하는 경향에 처해 있다.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력과 품격 있는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보다는 기능인 혹은 직업인 양성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 세간의 비판은 이제 더 이상 낮설지가 않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비결이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과 윤리에서 비롯된다는 진정한 사회적 교양의 존재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그 사람이 소유한 지식의 효용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고도로 분화된 오늘날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자질과 기능이 다양하듯이 국가와 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문교육과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사회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적 요청이 클수록 대학은 그에 부응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분명한 가치관과 대학생활의 목적을 확립하는 것이 요청된다. 전문분야의 기능적 지식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지닌 시민과 지도자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 대학교육의 기본 취지로서 강조되어야 한다. 도덕과 윤리를 결여한 인재는 인재로서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맑고 밝은 사회

를 추구하는 21세기에 경쟁력 측면에서도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된 인재나 기업은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출발과 역사가 ‘大學’과 ‘universitas’의 인류의 보편적인 요청과 연관된다고 볼 때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공간적인 소여와 삶의 영위가 자아내는 실용성에 따라 그 수급에 변화가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류의 대세에 편승하더라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소중하게 지켜야만 하는 도덕과 윤리를 전수하고 함양하는 교양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저간에 세상을 흔들었던 줄기세포 파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 도덕과 윤리, 즉 보편적인 교양이 상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대학은 기술인에서 문화인 그리고 자유인을 모두 지탱해 주는 교양교육에 소홀할 수가 없다. 총체적 상황파악능력 및 반성적 사고와 정연한 표현능력, 그리고 도덕적 판단능력과 실천능력 등을 함양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은 종합적인 시스템 속에서 순수한 학문의 추구하고 실용성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동시에 인간의 보편적 도덕과 윤리를 숙지한 교양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로운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인 존재인 학생들은 타자와 만나는 생활세계속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의 시민과 지도자로서 거듭날 것이다. 